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김민숙 의원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투자입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문 · 일답)입니다.



## 김민숙 의원

### ●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대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시와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요즘 졸업식 시즌이고 또 새 학기를 준비하고 계셔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김민숙 의원**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학교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어떤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육감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학교를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감사합니다.

◎ **김민숙 의원** 먼저, 학업중단숙려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지개이음이라는 사업명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학업중단숙려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 교육청의 무지개이음 프로그램은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학업에 복귀하는 것에 있는지, 어떤 것에 목표가 있는지, 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런 모든 것은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그러니까 결론은 학업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학업 중단도 예방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까지는 조금씩 감소해왔던 학업 중단 학생 수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에는 연간 20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장면을 보면 학업 중단 학생 수를 낮추고자 하는 목표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교 복귀율입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정리한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매년 50%를 밑돌다가 2021년도에는 88.4%의 학업 복귀율을 보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업 복귀율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복귀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 이전에는 학업 복귀율이 매우 낮다가 다시 2021년도에 갑자기 학업 복귀율이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다 아시다시피 더 구체적으로 같이 연구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운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 **김민숙 의원** 저는 교육감님의 의견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2022년도부터는 무지개이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숙려제를 진행했습니다.

학교가 싫어서 나온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많이 학업숙려제가 진행됐습니다.

지금처럼 학교가 싫어서 나온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혼하려고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같은 방에서 손 꼭 붙들고 있으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김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단위학교에서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자체 전문상담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에서 연계해서 모든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숙 의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학교 담당교사들이 숙려제를 진행하는 표준화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각 학교에서 이런 표준화된 결과나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는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학생들을 어떻게 했느냐, 학업중단숙려제의 대상자로 그냥 지정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학업 복귀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에서 무지개이음 프로그램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도 있지요.

그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무지개이음 프로그램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단상담이나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지개이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교사나 학년부장선생님이 숙려제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했구요.

숙려제는 인생의 중요함을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세심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시고 그리고 단순한 진로상담이나 자퇴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시고 지금도 몇 군데 하고는 있으나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로 외부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면 정말 표준화된 그런 매뉴얼을 개발하셔서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순회교사를 두셔서 학업중단숙려제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나가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별로 그냥 초등학교는 50만 원, 중학교는 70만 원, 고등학교는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 때문에 대상자는 없는데 그 예산을 써야 해서 대상이 아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저는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숙려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교육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실 거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외부 민간기관 연계하는 위탁기관도 2022년까지 4개 기관이었거든요.

금년도 2023년에는 2개 기관을 늘려서 6개 기관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을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해서 모든 역량을 길러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어야 되고 또 학업 중단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정사정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외국의 미인가 유학기관에 유학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전부 해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주 내실 있게 모든 학업을 잘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자체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 1960 · 1970 · 1980년대만 해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하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암기하면, 그리고 사지선다형이나 단답식만 봐도 그런 역량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소위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즐겁고 고민을 해결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서 꿈을 가지고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 학업 중단 학생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학업 중단 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관, 교육청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양 교육지원청, 지자체, 민간위탁기관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지도하면 모든 면에서 아이들이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숙려제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장하기, 꿈 찾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게 선생님과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앞으로 자기의 꿈을 위해서인지, 앞으로 학교에 복귀가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면 앞으로 학교 밖 학생으로서 어떻게 내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지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부모님은 아이가 그만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케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매뉴얼들이 꼭 마련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한 말씀만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학업 중단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요.

본인들이 자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교사가



보면 아이들이 학업 중단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걸 분석해야 됩니다.

● **김민숙 의원** 맞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분석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분석해서 아이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지도해야만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거든요.

고민 해결이나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그런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를 그런 방향 쪽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이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관련해서 2023년 예산을 확인해 보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꿈이음사업으로 7,300만 원, 교육지원사업으로 5개 기관 선정해서 2,500만 원씩 1억 2,5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제3조를 보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다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기관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대전시와 관련구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나이스 정보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위탁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위탁기관도 작년보다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 기관을 공모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스 연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로 해주셔야 되고 잘 연계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사업을 봤을 때는 유감스럽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8개 기관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씩 주던 것에서 증액을 제가 행감 때 권고했더니 올해는 5개 기관에 2,5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억 6,000만 원에서 오히려 1억 2,500만 원으로 3,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는 친구랑센터를 5개 구에 설치해서 학습이나 상담을 돕고 있고요, 울산은 교육청 내에 학교 밖 청소년 상담시설을 배치했고, 서울이나 경기·전남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박람회, 동영상 제작 배포하는 것, 대입상담 지원 등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런데 지금 줄어든 것은 아시다시피 개별기관에 작년도 2,000만 원하고 금년도 2,5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연계활동 같은 것에서 더 보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원기관에 대해서 2,500만 원으로 늘렸는데, 개별기관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개별기관과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동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든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진로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강화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다 공감되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초등학생은 1,300만 원, 중학생은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1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보이겠지만 10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13배에서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요, 만약 이 아이들이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면 1,200만 원의 예산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1년도 학업 중단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187억 9,800만 원이 됩니다.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쓰는 예산은 고작 2억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앞으로라도 이런 지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두둑하게 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을 제가 세 차례 만나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를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는데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태블릿PC나 컴퓨터 지원, EBS·에듀윌 서비스 이용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생존수영 프로그램 참여, 도서 지원 및 검정고시 대비 학습멘토링 강사파견 지원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전에서 3개의 학교 밖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엔 1,394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연계된 아이들이 586명, 이 친구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86명의 아이들이 이번에 검정고시 4월, 8월에 봐서 95%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상담 모든 것을 위해서 지원액을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원액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맞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우리 교육청을 생각해서 돈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학생해양수련원 우리 직속기관이지요.

학생해양수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곳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고요, 수학여행 지원이 되지요, 거기에서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고요, 한밭교육박물관을 통해서 체험 및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원을 통해서 메이크업교육, 교육연수원을 통해서 학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창의인성센터에서 천체관측교육, 그리고 발명창작교실 이런 것들은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다 하고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그래서 특별한 예산 없이 현존하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조금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전교육청 산하에 9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체험활동을 해서 그 속에서 진로를 개척하고 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학생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지원합니다.

그만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강좌 등 우수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대학입시설명회 또 진로진학상담 등에 대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도 대학입시를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진로강좌 이런 걸 들어야만 바르게 잘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멘토링 교육 지원으로 학습부진 학생 또 경계선 지능장애 청소년들에게도 기초학력이 강화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초학력 능력을 개발해서 지적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전교육청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니까 전문가이신데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가장 기쁜 말인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몇 차례 말씀해 주셨거든요.

꼭 약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부탁하셨던 부분인데요, 4월, 8월 검정고시 접수 기간에 우리 교육청 1층에서 하지 않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김민숙 의원** 그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때는 검정고시를 보러온 아이들이 모두 다 접수하러 오기 때문에 이때 학교 밖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은둔형 외톨이나 집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안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한 2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우리 시에서 주는 꿈 키움 수당도 홍보하고 또 학교밖센터도 홍보해서 아이들이 해매지 않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센터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꼭 그런 부분들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학교가 두려워서 학교를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를 볼 때는 다시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교밖센터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검정고시를 보러왔더니 문신 다 두르고 너무 무섭고, 옛날에 가해자였던 모습의 친구들이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로 시험을 보지 못하고 문 앞에서 덜덜 떨다가 가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학교도 별도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학교가 아닌 외부에 어떤 한 기관을 정하셔서 이런 친구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김민숙 의원**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방학이어서 학교별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수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잘 지켜서 다시는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답변 성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보거나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즐겁게 모든 면에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리고 방학 중에 공사 많이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이 아주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질문과 제안을 해주신 김민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감사합니다.

● **김민숙 의원**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지요?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예, 많이 바쁩니다.

◎ **김민숙 의원** 오늘도 많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해달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주었다면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 먹고살기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계형의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데 문제없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빨리 그런 날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더 많이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전에서는 학교밖센터가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70%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시센터는 시에서 30% 그리고 구는 시와 구에서 각각 15%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꿈 키움 수당과 그리고 대안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서 2023년도 예산의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이 약 15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교통비 지원사업인 꿈 키움 수당에 6억 1,700만 원을 배정해서 학생 수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서 시장님의 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우선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책무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저 대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5개 구 중 서구와 유성구에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대덕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그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더군다나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조차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12월 5일에 대구 달서구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외 12명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도 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특히 대전에는 미설치 시·군·구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국 상황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덕구, 중구, 동구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혹시 설치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동구, 중구, 대덕구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하고 서구하고 유성구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추진실적으로 보면 한 1만 3천 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전시는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설치된 3개 자치구에 센터 건립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24년도에 대덕구, 2025년도에 동구, 2026년도에 중구 순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꼭 그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여건이 되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특히나 취약한 곳이 동구나 중구, 대덕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대덕구, 중구, 동구에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센터에서 아이들 실적을 잡은 건데요, 사실은 더 많지만 서구나 유성구 그리고 시에서 자기 구가 아닌 대상자를 상담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각 구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비와 시비로도 지원을 해야 하는 만큼 시에서 협상력을 잘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청소년은 주변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님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에서 허가 인증한 재단이 운영하게 된 서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마사지숍, 전당포, 비즈니스클럽, 바, 호텔 각종 유흥업소들이 있는 월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가출청소년 350명이 노래방 도우미로 적발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도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노예로 노래방에서 일을 시키고 업주가 성착취를 하는 것들이 계속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영상자료 개시)

(12시 22분 영상자료 종료)

지금 보신 것처럼 매년 경찰, 서구청 그리고 청소년센터가 합동으로 유해환경 점검 및 청소년보호캠페인을 제가 10년 이상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센터가 설치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 조금 노출돼서 내성이 생길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같은 건물에 노래방이 있고 온갖 유흥업소가 즐비한 곳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학교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꿈 키움 수당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9세~13세 미만에는 5만 원 그리고 13세~24세 미만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수립한 예산이 6억 1,700만 원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된 것이 작년 기준으로 1,3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조차 사실은 예산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평균 3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 인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요즘에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학교 밖 아이들도 학교에서 나오는 즉시 부모님들도 다 성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바도 해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먹고살기 너무 힘든데 급식비나 교통비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의원님께서 좀 전에 저한테 물으신 것도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탁기관,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해당 위치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데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자치구에서 하는 센터는 수탁기관 자체를 자치구에서 하는데다가 지도점점 주체도 사실 서구입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구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꿈 키움 수당, 사실 학업을 중단하는 우리 아이들도 참 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하고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꿈 키움 수당, 자기개발을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우리 대전시는 어쨌든 2021년도에 한 3억 2천만 원대에서 지난해에는 5억 2천만 원대로 확대를 했고 금년에는 6억 7천만 원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계속 늘려 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해서 만약에 운용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아이들, 청소년들 수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해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제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 **김민숙 의원** 감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청에는 교육지원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현재 꿈드림센터에서는 발품 팔아서 33개의 지역업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한적이에요.

보니까 바리스타, 애견숍, 네일숍 그리고 미용실, 제과제빵 이게 다인데요.

제가 자립 지원이나 취업 그다음에 자활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더 들이지 않더라도 시에 협력되어 있는 기관들이 이미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각자 시·군·구센터에 인턴십으로 아이들이 그곳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직업체험을 통해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열어두거나 이러한 방안만으로도 굉장히 아이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게, 지금 여가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용접 이런 겁니다.

그런 데 갈 수도 없고요, 아이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발굴하는 것이 주로 커피숍이나 미용 이런 데인데 그런 것 말고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주는 것도 굉장히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전시민으로서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하고 또 종종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고 얘기하는데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 국가의 미래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감사한 말씀이고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공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학업을 중단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돕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전시정은 예산에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예산을 투입하되 특히 보육 문제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상교육 문제도 상당히 진척을 했고 또 나아가서 학교급식비도 전향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올렸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관리와 지원도 여건이 되면 더욱더 확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오늘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고 의미 있는 결과까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